

프로문학자의 행동주의 문학론

— 지식계급론에의 편중성 —

李 海 年*

차 례

- | | |
|----------------------------|---------------------------------------|
| I. 행동주의 문학론의 전개와 프로문학자의 인식 | IV. 한효와 마르크시즘적 독단론 |
| II. 박치우, 전원배, 좌익공식론의 시작 | V. 임화와 프로문학 옹호 |
| III. 홍효민과 지식계급론의 본격화 | VI. 프로문학자의 행동주의 문학론,
그 지식계급론에의 편중성 |

I. 행동주의 문학론의 전개와 프로문학자의 인식

본고는 우리문단에서 1935년 1월에서 1936년도까지 논의되었던 행동주의 문학논의의 전체적 흐름과 특성을 살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문학 논의가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과는 다르게, 프로문학적 세계관 위에서 지식계급문제에 편중되어 전개되도록 변용되어진 것은, 특히 중기의 본격적인 행동주의논의를 이끌었던 프로문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졌기 때문임을 밝히고, 아울러 그 논의의 양상을 자세히 살피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동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전임강사

I - 1. 행동주의 문학론의 형성배경과 세 갈래의 흐름

행동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중되던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능동적 정신운동으로, 프랑스 지식계급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상, 문학상의 사조이다. '의지적 자유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전체성'에 복귀하려는 신인간 운동이었다.

1930년대 후반기는 우리문단에서 카프가 해산되고 일제의 파시즘이 노골화되는 시기여서, 우리문단 상황을 KAPF 문학논의의 전성기와 비교할 때, 강력한 이론의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며, 문단전체가 침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전형기의 문단에는 자연히 지식인의 무기력함과 不安과 무위한 생활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식계급 문인의 현실대처 방안과 문단침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마침 불문단과 동경문단에서, 파시즘이 고조되는 상황하에서 지식인들의 현실대처문제와 관련하여 '행동을 동반한 지성'과 '능동정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동주의 사조가 부각되자, 우리문단의 침체상황 타개에도 커다란 가능성을 맞게 된 듯 했다. 이에 해외문학과 출신의 문인들이 이러한 서구 유럽의 행동주의 사조를 소개하자 문단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이에 일제 파시즘의 압력으로 전향을 할만큼 위축상태에 있던 프로문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우리문단의 행동주의문학 논의도 본 궤도에 오른 듯 했고, 지식계급 문인들에게 조선현실 속에서의 대처방안과 행동의 지향점을 모색해 주었으며, 문학창작에 있어서의 구체적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는 데에 이르렀다.

우리문단의 행동주의문학 논의는 논자의 성향과 논의의 초점 및 논의 시기를 고려하면, 크게 세 갈래의 흐름으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¹⁾

첫번째 부류는 해외문학과를 비롯한 순수문학자의 진보적 수용으로서, 초기의 행동주의 논의에 해당한다. 순수문학적 입장에서 나아가 사회적 현실문제에 관심을 확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두번째 부류는 프로문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색적 수용으로서, 본격

1) 이해년, 「1930년대 한국 행동주의 문학론 연구」(박사학위 논문, 부산대 학교 대학원, 1994. 2.), pp. 51~56.

적인 행동주의 논의에 해당한다. 순수문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프로문학적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 프로문학자 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논의했던, 프로문학 재기를 위한 시도였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독단적 공식론'으로까지 치닫는다.

세번째 부류는 행동주의에 대한 종합적 또는 절충적 평가의 입장을 보이는 수용으로서, 말기의 행동주의 논의에 해당된다. 행동주의 논의를 부르조아 문학과 프로문학의 변증법적인 '합명제'의 단계로 간주한다. 행동주의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이에 의해서 이전의 프로문학적 독단론을 비판한다. 또 휴머니즘문학 논의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간주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I -2. 프로문학자의 현실 인식과 행동주의에의 관심

초기 행동주의문학 논자들은 대부분이 순수문학적, 예술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실문제에 관심을 확대하였다.

이들이 프랑스 지식계급이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인간의 문제, 인류공동의 과제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인 현실에 직접 뛰어들었던 사실에 자극받았고, 그 때문에 그동안의 순수예술적 영역에서 떠나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무기력하게 불안에 떠는 지식계급과 침체된 우리문단의 현실을 직시했고, 그 원인이 일제 파시즘임을 공감했다. 그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일제 파시즘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행동주의를 표방하였을 때, 그 행동주의의 의미는 민족주의적인 차원에 이르게 되고, 이들이 보인 사회적 관심은 프로문학적 세계관과 결국은 일치하게 되어, 행동주의는 프로문학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일으키게 되고, 본격적인 행동주의 논의를 전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²⁾

행동주의 문학논의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본격적인 논의를 담당했던 이들은 프로문학자들이었다.

프로문학자들은 우선 프랑스 행동주의를 통해 지식계급을 불안하게 한 원

2) 위의 논문, pp. 57~58. 참조

인이 파시즘임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세계적인 위협임을 인식했다. 전 세계를 불안과 혼돈, 위기로 몰아넣은 파시즘의 현실을 신전설 사건과 KAPF 해산, 전향 등 침체된 우리문단의 현실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시즘의 압력에 눌려 전향했지만, 당시까지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의美學을 최고의美學으로, 최고로 합리적인 철학으로 여겼으며, 프로문학기를 우리문단 최고의 전성기로 간주했다. 단지 프로문학을 내리누르는 극우 파시즘의 현실을 인식하고서, 마르크시즘적 세계관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무위한 생활을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할 것인가로 고민하고 불안에 빠져 있었다.

이때 프랑스 지식인들이 파시즘에 저항하여 인민전선을 결성하고, 또 코뮌니즘으로 전향하였던 사실에 주목하였고, 우리 프로문인들도 행동주의를 표방하여 일제 파시즘에 대응하려 했다.

파시즘에 억압되어 있던 프로문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개시킨 행동주의문학 논의도 사회현실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주로 프로문학적 세계관 위에서 논의됨으로써, 프로문학의 연장 또는 재기라는 인상을 남긴다.

이때 프로문학자들은 행동주의는 반파시즘이며, 마르크시즘적인 것이라고, 또 마르크스주의와 지식계급 간의 타협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과 독단적 계급공식에 의해서만 설명하려 했다. 행동주의를 지식계급 문제로만 편중시켜 전개했던 것도 마르크시즘적 독단이었고 이러한 독단적 좌익 공식론은 프로문학자들에게 공통된 현상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계적인 좌익공식론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행동주의 자체를 부정하기까지도 한다.

비록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가 프로문학자들에 의해 마르크스주의적 독단론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문단의 행동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일제 파시즘에 대한 전문단적인 저항이라는 의미의 다음에 놓일 문제였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프로문학가들에 의해 전개된 행동주의 논의에서 반파시즘의 의미보다 마르크스주의적이냐 아니냐의 척도가 우선되었던 사실과는 대조적인 특성이다. 이 때문에 우리문단의 행

동주의는 프랑스 행동주의에 보다 가깝게 접근했으며, 일본 행동주의 논의와는 구별되는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파시즘의 당사국이었던 일본의 행동주의에서 반파시즘의 의미는 우리문단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일제 파시즘에 눌려온 일본의 프로 문학자들에게조차도, 일제 파시즘은 단지 그들을 억압하는 반마르크스주의적인 존재일 뿐이었으므로, 이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던 일본의 행동주의 논의가 지니는 반파시즘의 의미도 단지 '반마르크시즘에 대한 반항'이라는 단순한 원리에 의한 것이며,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이제 우리 문단의 행동주의 논의를 프로문학적 세계관 위에서 지식계급론으로 편중시켰던 프로문학자들의 인식과 논의의 양상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II. 박치우, 전원배, 좌익공식론의 시작

본격적 행동주의문학 논의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불안을 고찰한 사람은 박치우와 전원배였다.

박치우는 우선 불안을 지식계급의 현실문제와 관련시켜 파악한다.

박치우가 「不安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1~3)(『동아일보』, 1935. 6. 12~14)에서, 불안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지식계급의 고민양상과 이들의 장래성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은 역시 조선 지식계급의 불안한 현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이란 원래 사회적 제 사정의 관념적 반영'이므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상과 사회현실과의 반영관계를 주시'해야만 한다는 마르크스주의 문학관에서 오는 것이었다.³⁾

박치우의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인테리는 원래 지식의 근대적 상품화가 시작된 후에 대량 산출된 지적 노동자 부류에 속했다. 그런데 지식상품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오늘의 인테리는 노동과 보수면에서 노동자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

3) 박치우; 불안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中), (『동아일보』, 1935. 6. 13)

불안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부터 온 것으로 본다. ‘외적 파산’(본질적인 파산)에서부터 생겨난 ‘내적 파산’이 바로 불안, 초조, 절망이라는 것이다.⁵⁾ 즉 이러한 불안은 ‘生이나 死냐!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인테리가 지성을 단념한 데서 오는 것이었다.⁶⁾ 인테리가 그 동안의 자신들의 특성이며 자랑거리였던 지성이, 오히려 파산의 원인이 되었고, 극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이후의 인테리는 반주지주의적 성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키에르케고르의 「此나 彼나」와 하이데거의 「無」, 야스퍼스의 「극한상황」, 세스토프적 「불안」 등등, 불안의 문학과 불안의 철학은 모두 ‘인테리의 절망적 자기 표현’이며, ‘불안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에 불과하며, 따라서 반주지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박치우가 지식계급의 불안의 성격을 규명한 것은, ‘지식계급의 역사적 자아각성’인 행동주의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박치우는 우선 극한 상황에 놓인 인테리의 장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길로 제시한다.

첫째는 숙명의 길(패배적 봉사에-)이다. 위기를 타개할 용기를 잃고, 모든 것을 숙명에 돌리고 감수하는 패배주의적 인테리의 길이며, 슈팽글러가 그 전형적 사상가였다.

둘째는 신화의 길(파시즘적 행동에-)이다. 자포자기한 인테리가 자신의 知力이 무능함을 통감한 나머지, 자신을 반성하고 수습할 겨를도 없이, 파시즘적 신화의 나라에 영합하는 것으로서, 하이데거의 나치스에 대한 협력이 전형적 예이다.

셋째는 자각의 길(역사적 자성에-)이다. 불안과 절망에 굴하지 않고 참된 자아를 찾으려는 것으로서, 자각적 인테리가 취하는 길이다. 앙드레 지드의 코뮌리즘에의 전향이 그 예이다. 파멸된 자아를 찾는 데는 냉정과 용기가 필요한데, ‘냉정’은 인테리가 전락하게 된 역사적 근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4) 같은 글(上), (1935. 6. 12)

5) 같은 글(上)

6) 같은 글(中)

의미하며, '용기'란 이런 인식으로부터 분출되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실천적 정열을 의미한다.

박치우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길 가운데 '숙명의 길'과 '신화의 길'을 비판하고, '자각의 길'에 가치를 둔다. 그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드의 전향을 불안과 허무를 극복하고 '역사적 각성을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그 동안의 불안의 문학과 불안의 철학은 비역사적 반역사적 초역사적이며, 역사적 각성이 결여된 것이며, 역사적 각성도 없는 인물들을 그렸다고 비판한다.

박치우가 행동주의를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인테리의 역사적 자아각성'이며 '실천적인 정열'을 동반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비교적 날카로운 인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박치우가 「파시즘적 행동주의가 자포자기한 인테리의 비합리적 심정에 영합되기 쉽고…… 불안의 사상이 행동적으로 기형화될 때 파시즘에 통한다」⁷⁾고 경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드의 전향을 '반역사적 불안을 극복한 역사적 자아각성'이라고 격찬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박치우의 논리는 행동주의를 '반파시즘적이며 마르크시즘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또 '비마르크스주의적이거나 반마르크스주의적인 태도는 모두 파시즘과 통한다'고 단정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독단론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러한 논리에서 大森義太郎의 독단론⁸⁾을 엿볼 수 있다.

전원배의 「不安의식의 本質」(『동아일보』, 1935. 7. 20)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부르조아지와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적 성격을 분석하고, 중간계급인 지식계급의 불안을 규명했던, 본격적인 지식계급론이었다.

전원배는 우선 '현대의 인테리겐차'는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하여, 부르조아지 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세력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한 중간적 계층'이며, '현대의 불안의식'은, 불안한 운명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인테

7) 같은 글(下), (1935. 6. 14)

8) 大森義太郎은 「소위 행동주의의 迷妄」(『문예』, 1935. 2)에서, '행동주의가 마르크시즘에 철저히 못하면 파시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독단을 보였다.

리젠차층의 자기인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현대 인테리겐차는 불안의 원인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현실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필연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여만 되는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극적 불안을 특히 「세스토프적 불안」이라고 규명한다.

그러나 전원배는 이러한 불안 현상을 단지 현대 지식계급에만 한정되는 문제로 보며,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안은 계급적 차이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그 의의와 성질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지배계급인 현대 부르조아지 계급은, 자기내 계급적 지위의 불안을 의식하기는 하나, 불안을 자기내 계급의 필연적인 불안으로 감수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권력을 써서라도 이 계급적 불안을 극복하려 한다. 이 점에서 인테리겐차의 불안의식과 차이가 있다.

반면에 현대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불안과 위기를 넘어서서 안정된 계급적 처지에 놓인 유일한 계급으로 본다. 본래 의식주 생활이 불안한 계급이었기 때문에, '변증법의 공식'(사물의 상태가 양적으로 일정한 도에 도달하면, 질적으로 변한다.)에 의하여, 도리어 안정계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들 두 계급은 불안을 중시하지 않으나, 인테리겐차만은 중간적 계층이므로, 불안을 불안으로 의식하고 사상화시켰다는 것이다.

전원배가 이처럼 불안의식 문제까지도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데올로기에 의해 파악한 것은, 바로 행동주의 논의가 프로문학자들에 의하여 이미 마르크스주의의 독단적 계급공식론으로 변질되어졌음을 의미한다.

Ⅲ. 홍효민과 지식계급론의 본격화

불안과 능동정신을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공식에 입각하여 지식계급론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확립시킨 사람은 홍효민이다. 「행동주의 운동의 검토-附 행동주의 문학의 조선적 기능-」(『조선문단』, 1935. 8)과 「행동주의 문학의 이론과 실제」(『신동아』, 5권 9호, 1935. 9)은 행동주의에 관한 전반적 논의와 함께

조선적 가능성을 검토한 본격적 문학논의였다.

홍효민은 먼저 유럽 지식계급의 형성과 몰락과정을 통해 불안사상과 능동정신의 산출과정을 살피는데, 근대 산업발달과 계급분화로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는 이들 파시즘이나 나찌즘에 분해되고 중간계급으로서의 인텔리겐차는 그들이 공들여 오던 자유주의가 붕괴되어 아울러 '그들의 전위적이요, 중추적이요, 지도적인 환상이 회박해 오고 소멸되게 된' 이후에, 새로이 우울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엄습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홍효민의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공식 이론에 의하면, 지식계급은 원래 자본가 계급에 부속된 존재였는데, 불필요하게 되어 노동자, 농민계급의 처지로 몰락했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계급에게는 노동계급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감각이나 육체적 기술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어 세계의 불안은 극심해지고 데카당한 경향이 흐르게 되었고, 그리하여 세스토프적 「비극의 철학」이나 하이데거의 「우울의 문학」, 니이체의 「초인간적 정신」을 재음미하고 위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계급은 양대 계급으로의 분화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프로나 부르냐, 즉 노동계급과 제휴하여, 이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느냐, 아니면 자본가 계급에 굴욕적인 기생을 지속하느냐 하는 두 갈래 분화의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본다.⁹⁾

홍효민은 세계적 불안이, 본래 자본가 계급에 부속했던 지식계급이 兩大계급(부르조아지, 프로레타리아)로 분해되어 가는 과정에 놓인 데서 오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때에 프랑스 지식계급을 선두로 지식계급이 兩大계급에게 被動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能動하자는 계급적 각성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철학상의 능동정신이며 행동주의 문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불안’은 지식계급의 계급분화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며, ‘능동정신’은 그不安에 대한 지식계급적 각성이라고 본 것은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공식론에 입각한 것이다.¹⁰⁾

9) 홍효민 ; 행동주의 운동의 검토-附 행동주의 문학의 조선적 가능-(4), 『조선문단』 (1935. 8)

10) 홍효민 ; 같은 글, 같은 곳.

홍효민은 이러한 계급공식론에 입각하여, 프랑스 행동주의가 제창된 원인과 일본문단에서 행동주의가 유행하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우리문단에서의 행동주의 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다.

홍효민은 일본의 행동주의 유행의 직접적 원인을 프랑스 지식계급과 일본 지식계급 사이의 주관적, 객관적 정세가 거의 일치하였으므로, 프랑스의 급진적 지식계급운동을 무조건적으로 직수입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행동주의를, 순수문학에서 “일보 사회성을 띤 진보적인” 또는 모방적인 舉階, 또는 “순수문학의 진보적 문인과 좌익의 패배주의자들의 악수 또는 제휴”라고 단정한 것은¹¹⁾ 프로문학가에 공통된 독단적 좌익 공식론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홍효민의 단정은 앞서 소개한 바대로, 大森義太郎이 「소위 행동주의의 迷妄」(1935. 2)에서 보여준 마르크스주의적 독단론과도 부합된다. 이러한 좌익 공식론은 행동주의 문학의 조선적 가능성에 대한 관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인은 감히 말하거니와 조선에 있어서 또 이 행동주의 문학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 또는 어떠한 조건으로서 가능한가 하면 이는 세계적 한 개의 뚜렷한 조류로서 만도 다분의 가능성을 갖고 있거니와, 그 중요한 이유는 조선의 객관적 정세가 일방의 부르조아적 문학과 프로레타리아 문학이 타협적으로 흐름과 병행하여, 이 신자유주의에 의한 행동주의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반 지식계급에게 어느 정도까지 합류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느니만큼 환영되지 아니치 못할 정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적 존재로서의 행동주의 문학은 얼마 아니하여 조선 문단과 조선 문학에 나타나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²⁾

중간적 존재로서의 조선적 행동주의가 나타나리라는 홍효민의 관망은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문학 再起에 더 많은 비중을 둔 프로문학자적 관점이었으며, 침체해 있던 프로문학을 부활시킬 좋은 기회로 행동주의를 인식한 데서 오는 것이다. 1935년 KAPF가 해체되었으나 이념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버리지 못한 프로문학자들이 상당수 그대로 존재해 있었던 사회현실로 볼 때, 패배한 듯이 보였던 좌익문학자들과 부르조아 문학¹³⁾과의

11) 홍효민; 같은 글(3)

12) 홍효민; 같은 글(5)

합류는 프로문학 재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홍효민이 프로문학을 부활시키고, 우리문단의 침체를 타파할 무기로 행동주의를 선택하였을 때, 홍효민의 행동주의도 역시 반파시즘적인 것이며, 일제 파시즘에의 저항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홍효민의 프로문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순수문학에서 일보 사회성을 떨 때만이 진보적 문인인 것이며, 반면에 좌익의 패배주의자들이란 그동안 파시즘에 억눌려 전향했거나, 마르크시즘의 세계관을 펴지 못했던 프로문인들을 의미한다. 특히 부르조아적 문학의 붕괴를 당연시하던 프로레타리아 문학자들이 종전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적대하던 부르조아지 문학자와 악수 또는 제휴할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들이 타협할 때, 행동주의 문학은 중간적 존재, 즉 부르와 프로 문학의 중간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홍효민의 견해는 뒤에 한효의 맹렬한 비난을 받지만 뒤이어 전개될 우리문단 행동주의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홍효민의 선견적 견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홍효민이 지적한 순수문학의 일보 사회성을 띤 진보적 문인에는 이헌구, 함대훈, 유치진 등의 해외문학과 출신을 들 수 있고, 좌익의 패배주의자로서 홍효민 자신과 박치우, 전원배 등을 적용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¹⁴⁾

홍효민은 행동주의 문학은 일시적 유행성을 가지고 부상하는 것이 아니며,

13) 사실 홍효민의 이러한 전망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그가 '부르조아지 문학과 프로문학이 타협적으로 흐르리라'고 보았던, 바로 그 부르조아지 문학이 당시 한국문단에서 존재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당시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농경사회였고, 근대 산업사회구조나 시민계급의 근대 민주주의 사조와는 전혀 무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서구적 의미의 부르조아지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문단에는 진정한 부르조아지 문학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프로문학자로서 홍효민이 말한 '부르조아지 문학'이란 단지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모든 '근대적인 기성문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주의 문학관에 의한 신흥문학(프로문학)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박영희가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조선지광』, 1927.1)에서 김기진을 향해 '부르조아적 문학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의미이다.

14) 홍효민 ; 같은 글(5)

현재보다 장래성이 더 많다고 보아, 우리문단에 반드시 개화 성화될 때가 있으리라고 판단했을 때, 행동주의를 파악하는 홍효민의 관점은 비교적 정확해 보이며, 다른 프로문학자들에 비해 비교적 덜 독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홍효민의 태도는, 행동주의가 우리문단에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小松清과 靑野季吉, 舟橋聖一の 견해를 인용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小松清의 견해는, 프랑스 행동주의가 인간존중의 불문단의 전통에서 생겨난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 점을 인식하여 '불문학의 귀족주의가 붕괴하여, 전체에의 복귀로서의, 행동주의 또는 혁명적 구성주의의 이상에까지 도달한 정신적 발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행동주의의 발생 근거를 불문단의 전통과 관련시켜 본 홍효민의 견해는, 다른 프로문학자들에 비해 비교적 덜 독단적이고, 정확해 보인다.

홍효민이 중요시한 것은 우리문단의 행동주의의 가능성이었지만, 문제는 문화적 전통이 전혀 다른 우리문단에서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이 발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었다. 홍효민의 전통논리는 이 점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프랑스 행동주의가 '인간의 이지적 통제에 의한 인간의 전체성 파악'에 대한 반발로서 생겨났다 하더라도, 우리문단에는 반향해야 할 '이지적 통제에 의한 인간성의 전체적 파악'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舟橋聖一이 프랑스 행동주의를 의지적 자유주의로서 「시대의 正礎한 진보성, 지도성을 가진 사상 동향에 대하여도 항상 誘掖的이요 질곡되지 않는 寬濶自由인 문학적 에스프리를 이르는 것이며, 근대문학의 재출발」¹⁵⁾이라고 한 것도, 이지적 통제를 거부하고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성을 존중해 온 프랑스 문단의 전통을 지적한 것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 행동주의의 장래성을 가늠했었다. 이러한 舟橋聖一の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문단 행동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홍효민의 견해도 또한 비교적 타당해 보이고, 마찬가지로 앞서 밝혔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논리의 결말에 가면, 비교적 중도적이었던 홍효민의

15) 홍효민 ; 같은 글(6)

행동주의도 결국 靑野季吉의 지식계급론에 의거한 마르크스주의의 기계적 공식론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靑野季吉은 프로문에 비평가답게, 능동정신이 지식계급의 계급적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프로문학 운동 시기에 진보성을 보였던 지식계급의 능동정신이, 공식적 계급 동향이론에 봉쇄되어, 자신을 무시 부정하고 노동계급에 예속 융합시켰다가, 기계적 공식적인 예속 융합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함을 새로운 능동정신에 의하여 자각함으로써, 정신의 자유, 적극적 자유로 새롭게 발전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靑野季吉의 관점은 행동주의를 지식계급론으로만 편중되게 변모시킨 독단론이었으며, 홍효민의 지식계급 논의는 바로 이러한 靑野季吉의 프로문학적 계급공식론과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홍효민의 프로문학적 독단론은, 이 비평문의 다음과 같은 결론에 노골적으로 표출된다.

그것은 금일의 조선 문단을 볼 때, 무엇으로나 이 침체되어 있고 아울러 치기만만한 이들의 문학 현상을 극복할 무기가 있는가. 이곳에 행동주의 문학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무기가 되는 동시에 국면을 타개할 신경향파의 문학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된 것이다.

홍효민은 '행동주의만을 조선의 침체된 문단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로 보며, 그 무기는 반드시 '新傾向派의 문학'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행동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프로문학적, 좌익적 골격을 가진 행동주의만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프로문학을 행동주의보다 우위에 둔 관점이다.

이러한 프로문학 우위의 관점은 「행동주의 문학의 이론과 실제」(『신동아』, 5권 9호, 1935. 9)에서, 행동주의를 '新자유주의에 의거한 新문학운동으로서, 가장 현대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제외한 진보적인 문학운동'이라고 평가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상과 같은 관점들은, KAPF해체 이후에도 줄곧 견지해 온 홍효민의 프로문학관을 표출한 것이며, 프로문학 이후에 방황하던 대부분의 좌익 문학자의 관점을 대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홍효민의 행동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기계적 계급공식에 입각하여 행동주의를 지식계급론으로 변모시킨 본격적 비평이었다.

홍효민이 프로문학의 부활과 우리문단의 침체를 타파할 무기로 행동주의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행동주의의 조선적 가능성을 탐색하였을 때, 홍효민의 행동주의도 역시 일제 파시즘에의 저항이라는 의미를 띤다.

그러나 부르조아적 문학과 프로문학의 중간적 존재로서의 행동주의를 관망하였던 논리의 바탕에는 행동주의를 ‘반파시즘적이며, 지식계급과 마르크시즘과의 타협’이라고 단정하는 마르크스주의적 독단이 깔려 있었다.

또한 그가 행동주의의 조선적 가능성을 살핀에 있어 프랑스 행동주의를 프랑스 문단의 전통과 관련시켜 파악한 것은 비교적 편견없는 견해였으나, 홍효민이 표방한 행동주의의 실체가 ‘신경향파의 문학’임이 드러날 때, 결국 마르크스주의적 독단론에 귀착되고 마는 아쉬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를 지식계급론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인간의 전체성 파악이라는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변모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IV. 한효와 마르크시즘적 독단론

한효가 행동주의를 논의하는 기본관점은 유물론적 관점이다.

그는 모든 원인과 현상을 오늘날의 물질적 생활의 모순과 사회현실의 객관적 해명에서 찾으려는 유물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식계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지식계급의 불안과 ‘능동정신’ 그리고 행동주의를 부정하며, 우리문단 행동주의의 가능성도 모두 부정한다. 여기에 이르면, 한효의 행동주의는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독단적 공식론의 극한 지점에 놓이게 된다.

한효는 불안을 금일의 물질적 생활모순과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현실적 충돌에서 파악하려 한다. 한효가 바라보는 능동정신에 의한 행동주의는 ‘이를 납득하지 못한 인텔리가 공포, 동요를 느끼고, 그 때문에 무원칙한

발악증상을 일으킨 대표적 예'에 불과할만큼 부정적인 사조였다.

또 행동주의의 발생원인인 '불안'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부정적이었다. 행동주의를 일으킨 불안은 프로문학 시기의 불안보다 열등하고 무모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효는 또 신흥문학이 대두하여 문학에서의 사회성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의 인텔리겐차의 고뇌와 불안은 금일과 다른 것이었다고 본다.¹⁶⁾ 새로운 세계관의 정당성을 인식하면서도 자기 행동에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의 생활이 소부르조아적인 것에 대한 자기 혐오와, 인텔리겐차의 사회별 분화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임에도 거부하려고 애쓰며, 자신의 사회별 移行에 대해 무원칙한 공포만을 가지는 무능력에 대한 자기 혐오의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고뇌와 불안은 자신의 생활의 무내용을 적극적인 계급발전의 필연성 앞에서 승인하였다는 진보성을 띤 것이라고 한효는 생각한다.

금일의 인텔리겐차의 고뇌와 불안은 프로문학 속에서 모든 ××××에 인내하기에는 아무런 용감성도 탄력성도 없으니 자기자신으로 되돌아가자는 개인의 의식 속에, 개인의 행동 속에 그들의 최후적인 활로를 찾으려는, 일보 진보적인 듯하면서도 오히려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려는, 가장 무모하면서도 인텔리전적인 영리성을 내포한 것으로 변화되었다.¹⁷⁾

행동주의보다 프로문학을 더 우위에 두고서 불안을 고찰하는 이러한 한효의 논지는 靑野季吉이 「능동정신의 대두에 대하여」(『행동』, 1934. 11)에서 보여준 견해에 바탕한 것이었다. 앞서 밝혔듯이, 靑野季吉은 행동주의의 불안과 능동정신을 프로문학시기의 '진보적 지식계급의 불안과 능동정신'보다 열등한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한효는 지식계급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식계급의 독립론인 능동정신과 행동주의도 부정하게 된다. 능동정신이란 새로운 자유주의에 입각한 지식계급의 스스로의 능동을 말하며, 이는 현실의 역사적인 기성층과 신흥층에 피동할 것이 아니므로 현실의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지식계급의 독립론이기

16) 韓 曉; “行動主義 文學論” 批判-知識階級과 行動精神-(5~6), 『조선중앙일보』 (1935. 10. 24~25)

17) 한 효; 같은 글(6)

때문이다. 이러한 논지의 근거는 永井街子の 이론이다.¹⁸⁾

결국 한효는 능동주의를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中野重治가 『문학 평론』 3월호에서 ‘능동정신이 반동적이라고 규정해선 안된다’라고 한 데에 반대한다.

한효는 인테리겐차를 반동적 대중이라고 보진 않으나, 그의 행동이 반사회적인 경우에 그들의 행동을 반동적이라고 지적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다음, 능동주의는 첫째 결코 ‘대중이 아니고 행동’이므로 다분히 반동적 요소를 지니는 것이며, 둘째, 그들의 이론이 프로레타리아 이익을 정당히 대표하지 못하였고, 셋째, 오직 그들 자신의 ‘개인의식의 심연에 沈溺’하려 하며, 넷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정당한 발전적 동향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표현되었으므로 그 행동을 반동적이라고 규정한다.

즉 한효는 행동주의 문학을 반동적이라고 규정하며, 따라서 기계적 이식을 성급히 강조해 온 흥효민에게 냉정한 경계를 보이는 것이다.¹⁹⁾ 이러한 한효의 태도에서 마르크시즘의 계급공식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자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한효는 능동정신을 근본적으로 반동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中野重治가 ‘능동정신은 이중적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반동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 것을 비판하고, 능동주의는 신흥층의 이익을 대표하려는 진보적 인테리겐차의 소치가 아니고, 거기서 타락했거나 뿌떠부르적 浮動層의 불안의 소산이며, 그들 행동이 철두철미 비사회적이고 뿌떠부르적이며, 비계급

18) 한 효; 같은 글(3)

永井街子は 「능동정신에 대하여」, (『부인문예』, 1935. 2)에서 인테리겐차는 양대 계급에 의존치 않고는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지식계급이라는 계급이 존재치 않는 한 독립적 활동은 御都合主義(기회주의)가 된다는 해석을 내린다. 「먼저 신흥층의 이익을 망각치 않으면, 진보적 인테리겐차의 활동요지와 방향이 결정되며, 둘째 전향시대라는 불안이 출현함으로써 인테리가 공포를 느끼며,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개인주의적 이해에 도달하여 인테리의 옹호를 주창하게 된 것이며, 셋째 무의식적으로 계급을 무시한 주장인 능동정신에 의하여 우익적으로 되는 프로적 연사를 사용하든 무관하다는 「御都合主義」에 통하게 된 것」이라고 능동정신을 설명한다.

19) 한 효; 같은 글(1~2)

적임을 주장한다.²⁰⁾

中野重治가 행동주의를 부르조아지에 대한 뽀띠부르조아의 반항이므로, 반동적이지 않다고 보았을 때, 행동주의는 뽀띠부르조아로서의 지식계급의 소산이 된다. 그런데 한효는 신흥층에 가까운 지식계급만을 진보적 지식계급으로 인정하므로, 부르조아지(부동층)에 가까운 뽀띠부르조아로서의 지식계급의 소산인 행동주의는 반동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한효는 舟橋聖一の 의지적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舟橋聖一の 리버럴리즘은 '지식계급 본래의 면목인 양심적인 자태를 도로 찾으려 하고, 인테리의 아나키한 행동성을 충동'하였던 것인데, 한효는 이를 기준없는 행동에의 충동욕구이며, 다분한 반동성과 문학 붕괴의 요소를 내포한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한효가 大森義太郎의 입장을 견지한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보여준다. 한효의 舟橋聖一에 대한 비판은, 大森義太郎이 극단적인 마르크스주의 독단론에 입각하여 舟橋聖一の 리버럴리즘을 비판했던 것과 똑같은 비판이다.

사실 舟橋聖一이 '지식계급의 본래의 양심적인 면목'이라고 한 의미는 반마르크시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순수예술적인 영역에서 나아가 그리고 프로문학에 대한 안티 테제의 입장이 아닌, 합명제 단계의 행동주의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러한 舟橋聖一の 행동주의를 반마르크시즘적으로 보아 반동적이라 규정한 것은 大森義太郎의 극단적 독단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大森義太郎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극단적인 독단론을 견지한 점에서, 같은 프로 문학가라고 하더라도 한효의 행동주의 정신은, 靑野季吉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홍효민의 지식계급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靑野季吉의 지식계급론이 '지식계급의 반성적 자각에서 오는 능동정신'을 표방한 것이라고 해도, 大森義太郎이 극단적인 마르크스주의 독단론에 입각하여 靑野季吉을 배격했던 것처럼, 한효는 홍효민의 지식계급론조차 비판 배격하는 극단 지경에 이른다. 비교적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했던 홍효민의 행동주의조차 한효에게는 반동적인 것으로 판단되었

20) 한 효; 같은 글(3)

던 것이다.

한효의 「“행동주의 문학론” 비판—지식계급과 능동정신—」(『조선중앙일보』, 1935. 10. 17~25)은, 홍효민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시작된다. 홍효민이 조선 문단에서 부르와 프로의 양대계급의 합류가능성이 보이고, 행동주의 전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 데 대한 반론인데, 세계적 조류라 해도 우리의 현실과 발전과정에 모순되는 이론을 배격해야 하며 현재는 기성문학(부르조아적 문학)과 신흥문학(프로문학)의 타협적 흐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²¹⁾

신흥문학이란, 어떤 경우든 기성문학과 타협적으로 흐를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신흥문학이란 ‘기성문학에 가장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기성문학과 타협적으로 흐른다면 전혀 신흥문학일 수 없다는 것이며, 정당한 신흥문학에 대한 변절자, 타락자, 내지 반동 분자라고 극력 강조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흥문학은 지식계급의 행동을 어떤 수준까지든 제약하면서도, 실력있는 본질을 가진 진정한 문학자에게는 아무런 구속도 안 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단, 그 행동이 사회적 이익을 대표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되지 않는 한’ 진정한 신흥문학은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끝까지 신흥문학 옹호론을 편다. 그러므로 홍효민이 도피자들의 행동을 지적함으로써 신흥문학과 기성문학과 타협이라고 단정하고 논의한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행동주의 문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보인다.

또한 아무런 반동적 증상을 가지지 않는 행동주의 문학이 과연 이땅에 수입 가능한가, 또한 진정한 프로문학에서 이탈되어 여하한 문학이 가능한가²²⁾

이는 프로문학이 퇴조한 시점까지도 프로문학을 최고의 미학으로 간주하는 한효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효는 프로문학의 존재와 재기를 확신하는 비평가다. 그는 프로문학이 부진한 우리문단의 현실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리고, 프로문학이 부진한 우리문단의 현실에 대해서는 첫째, 프로작가의 전향으로 불리한 재관적 정세에 처해

21) 한 효 ; 같은 글(1~2)

22) 한 효 ; 같은 글(3)

있고, 둘째, 우리들 즉 프로문학의 사회적 결속력이 미약하고, 조직적 활동은 카프 해산 뒤에 아무런 구체적 표현을 보지 못했으며, 셋째, 문학 활동이 전혀 대중층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프로문학의 확고한 위치와 재출발의 임무를 믿고 있다. 따라서 홍효민이 기성문학과와의 타협 운운하는 왜곡된 의견은 행동주의의 조선적 가능성을 내포한 중요한 견해도 아니고, 행동주의와 사회와의 관계를 밝히지는 못한 견해였다고 비판했다.

한효의 극도의 프로문학 옹호 태도는 小松清의 「행동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반론에서 표출된다. 小松清은 「첫째, 프로문학자들이 심리주의 리얼리즘 논의를 통하여 프로문학의 부활을 꿈꾸어, 현재의 프로문학이 '19C 리얼리즘 심리주의의 舊套을 쓰고' 있으며, 둘째, 프로문학자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인간적 反省과 새로운 표현에 대한 관심이 흐르고 있으며, 정치주의적이고 반개성적인 문학사상과 계급 및 역사적 필연에 질식되기 쉬웠던, 인간의 생활과 의식이 작가 내부에서 소생되려고 한다」고 프로문학자들의 동태를 언급한 바 있다.²³⁾ 이에 대해, 한효는 小松清의 견해가 프로 문학의 새로운 동향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이며, 프로작가의 활동을 말살하려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憂鬱의 프로문학은 사상적으로 내성에 沈溺될 수 없고, 사회적 계급적 관계에서만 인간을 관찰하고, 생활에 대한 인간의 의사를 유물변증법적 과정에서 해독하고 강화하므로, 인간에게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현실적 모순에 반항하게 하려는 사상적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²⁴⁾

여기서 우리는 한효가 행동주의를, '자신의 내성적 심연에 침몰하여 인테리의 옹호를 부르짖는 것', 또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 개인의 의식과 행동 속에서 최후의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본 이러한 관점이, 작품상에 미칠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즉 우리문단에서는 행동주의가 심리주의적인 면모와 거의 유사하게 또는 섞여서 드러남으로써 행동주의 작품을 심리주의적인 작

23) 한 효; 같은 글(4~5)

바로 이러한 小松清의 견해는 이후 우리문단에서 행동주의가 관념적으로 추구되어 있는 단층과 작품이 최재서, 백철, 김시태 등에 의하여 심리주의적 리얼리즘 작품으로만 단정되어 온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을 바로 잡는데 근거가 될 수 있겠다.

24) 한 효; 같은 글(5)

품으로만 단정하게 하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며, 실제로 행동주의 사상인 지식계급의 고뇌와 불안, 인테리의 옹호 문제, 인간적 내성애의 침잠 등은 행동주의를 지향하는 작품의 주된 주제로서 관념적으로만 표출되었던 것이다.

한편, 한효는 '행동주의의 조선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데,²⁵⁾ 그것 역시 극도의 프로문학 옹호 입장에서 오는 것이다. 舟橋聖一の 리버럴리즘을 반동성과 문학붕괴의 요소를 내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행동이란 역사의 적극면과 결합하여 계급 이행의 방면에서 실천되어야 하므로, 현 상태에서 계급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행동이 문학에서는 어렵다'고 본 中條百合子の 의견을 들어 행동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곧 '행동주의를 우리문단 침체의 극복 무기'로 보았던 효호민의 관점을 반박한 것이다.

이처럼 한효는 오히려 행동주의의 가능성을 거의 부정한다. 행동주의를 "인테리겐차의 계급적 사회적 분화에서 오는 불안의 극복 수단" 또는 "개인의 의식, 내성적 심연에서 활로를 찾으려하는 무모한 인테리 옹호"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행동주의를 부정하는 근본 이유는 행동적 휴머니즘(능동주의)이 프로레타리아의 이익을 정당히 대표 못하고 자신의 개인의식에만 沈溺하려 하는 데다가, 프로문학의 정당한 발전적 동향을 부정하려는 반동적 행동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논리의 결말은, 극단적인 마르크스주의 계급공식에 의하여, 행동주의 문학은 '일시적 유행에 그치리'라는 단언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첫째, 인테리겐차는 한 개의 생활층도 ×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즉 인테리겐차를 하

25) 한효는 행동주의의 조선적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는 「첫째, 조선의 신흥문학 운동이 모든 ××적 조류에 박차를 걸고 진보되면서 있는 과정에 있어서, 둘째, 필연적으로 도피적 인테리겐차의 離絶을 초래케 하리라는 평범한 예견에 의하여, 현재 수인의 타락한을 산출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셋째, 그들이 이제 당연히 그 최후적인 활로의 무대로서 행동주의와 능동정신의 신념으로 분장되려 할 것이며, 넷째, 더욱 일방의 비계급적 문학인들이 이때까지 아무런 주도적 이론도 없는 지리한 파멸의 구렁에서 새로운 활로로 접어들듯이, 이 행동주의의 탈을 쓰고 跳梁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는 사실들을 들어, 행동주의의 조선적 가능성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한 바 있다. (같은 글(6))

나의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인텔리겐차는 장차 분화되어 지리라는 것, 세째, 제 사정이 모두 행동주의의 유행성을 폭로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한효는 신흥문학이 아직도 진보과정에 있다고 보며, 그 때문에 전향 문인들을 ‘타락한’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행동주의는 비계급적 문인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로, 프로문학적 세계관을 포기하지 못한 비평가였으며, 오히려 프로문학적 세계관을 확신하는 프로문예비평가였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효의 행동주의는 마르크시즘의 독단적 공식론이 극단에 달한 것이었다. 한효는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공식에 입각하여 행동주의와 능동정신을 부정하고 혹평하였던 ‘프로문학 비평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계적 계급공식에 의해 지식계급이라는 중간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지식계급이 신흥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적 인텔리겐차가 아니고, 부르조아지층에서 타락한 썩어 부르조아지인 경우에는, 그 썩어 부르조아지가 주장한 ‘능동정신’도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행동주의의 평가기준도 프로레타리아 계급 및 프로문학적 이익의 유무에 있는 것이어서, 프로계급의 이익을 정당히 대표 못하고, 프로문학의 발전적 동향을 방해하고 부정한다고 판단된 행동주의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효가 행동주의를 검토하는 잣대가 마르크스주의적이거나, 반마르크스주의적이거나와 지식계급의 독립성 여부와 반동성 여부에 달려있고, ‘비마르크스주의적인 것과 반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은 모두 반동적’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을 때, 한효의 행동주의는 극단적인 마르크시즘적 독단론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프로문학이 퇴조한 당시까지도 철두철미하게 마르크스주의적 독단론을 고수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프로문학가라고 하더라도 홍효민의 행동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비교적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사회현실을 파악하였고, 덜 독단적이었던 홍효민의 행동주의조차, 반동적이라고 비판하고 배격하는 극단지경에 이른다.

한효의 행동주의는 행동주의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1920년대 후반의

프로문학 논쟁의 연장과도 같은 성향이 짙었다.

V. 임화와 프로문학 옹호

행동주의 논의가 정상에 올랐을 때, 文學者의 행동정신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기초적 방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林仁植(林和)의 「문학과 행동과의 관계」(『조선일보』, 1936. 1. 8~10)이었다. 이 비평은 행동주의에 관한 연구라기 보다는, 1930년대의 시대적 조류를 의식하고, 프로문학적 세계관을 옹호하려 하였던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당시는 예술(문학)의 對 사회적 관계에 큰 비중을 두어 오던 프로문학을 예술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던 때였다. 이러한 때에 임화는 행동주의를 논하기 보다는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문학과 행동의 불가분의 관계를 증명하여 프로문학적 세계관을 옹호하려 한다. 임화는 ‘문학과 행동과의 관계’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관계’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문학(사유, 정신노동, 예술)은 행동(육체노동)의 일반적 범위 중의 특수한, 개별적인 일부’라고 결론 짓고, 이러한 결론의 전제조건으로 엥겔스의 명제, 즉, ‘노동은 인간적 존재의 최초의 기본조건이며, 언어는 노동과정 내의 융합된 상태(노동, 언어, 사유)에서 동작언어로 발생하였다’는 명제를 내건다. 그리고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고찰을 통해, 흔히 ‘문학과 행동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근대시민사회의 소산’이며, 부르조아제도가 산출한 예술관임을 비판한다. 또 그를 통해서 문학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프로문학적 예술관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임화의 비평은 행동주의 본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프로문학자로서 퇴조한 프로문학적 예술관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계 연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 행동주의를 프로문학의 새로운 무기로서 받아들였던 短評을 살펴보면, 그 대표적 예로 如水の 「파리의 국제문화옹호연맹」(『조선일보』, 『探報』, 1935. 8. 31)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제문화옹호회의에 모인 작가들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정치와는 무관한

문학자로 자처하던 이들이 문화를 위해 정치적 전선에 나선 것을 강조하고, 우리 작가와 평론가들이 자극받기를 바라고 있다.²⁶⁾

VI. 프로문학자의 행동주의 문학론, 그 지식계급론에의 편중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대로, 본격적 행동주의 문학논의는 프로문학자들에 의해 마르크시즘적 세계관 위에서 사회적 현실과 지식계급 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된다.

일제 파시즘의 압력으로 내면적이든 외부적이든 프로문학적 세계관을 포기하지 못한 프로문인들이 대거 참가하여, 가중되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안과 우리문단침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던 비평이었다. 이들이 불안이나 능동정신 행동주의를 보는 관점은 모두 지식계급이 당면한 사회적 현실의 객관적 해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파시즘에 억압되어 있던 프로문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개시킨 행동주의문학 논의도 사회현실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주로 프로문학적 세계관 위에서 논의됨으로써, 프로문학의 연장 또는 재기라는 인상을 남기며 ‘패배적 프로문인의 현실적 타협’이라는 자기비판도 받게 된다.

대부분의 프로문학자들은 행동주의는 반파시즘적이며, 마르크시즘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또 마르크스주의와 지식계급간의 타협이라고 규정한다. 그

26) 이러한 論旨은 과거 프랑스에서 파리폭동사건(1934. 2) 이후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제 유파를 극복하고, 지식계급연맹(지식계급의 ‘부르’와 ‘프로’계급의 결합)을 조직하여 파시즘에 대항함으로써 행동주의로 발전했었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홍효민이 「행동주의 문학 운동의 검토」에서 ‘조선의 객관적 정세가 부르조아문학과 프로문학이 타협적으로 흐르고 합류의 가능성을 보임으로 그 중간적 존재로서의 행동주의 문학이 나타나리라’고 전망하고, 행동주의 문학은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신진향 문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시하였던 사실과 같은 평가로 보인다.

李海年: 「1930년대 후기 新聞短評 研究」, pp. 66~69.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2)

리고 모든 것을 마르크스주의 세계관과 독단적 공식에 의해서만 설명하려 했다. 행동주의를 지식계급 문제로만 편중시켜 전개했던 것도 마르크시즘적 독단이었고 이러한 독단적 좌익공식론은 프로 문학자들에게 공통된 현상이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기계적인 계급공식론이 극도에 달하면, 한효에게서 보듯이 근본적으로 행동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행동주의문학 논의에서 지식계급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된 이유는 프로문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동주의 제창의 원인이 되는 불안사상이나 그 극복으로서의 능동정신이 모두 지식계급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불안은 계급분화 과정에 놓인 지식계급의 계급적 자기인식에서 오는 것이었고, 능동정신은 지식계급의 독립론이며, 계급적 각성이었다.

이렇듯 파시즘에의 패배감에 젖어있던 프로문학자들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 지식계급문제를 다룸으로써, 행동주의문학논의는 지식계급론으로 일반화되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행동주의를 지식계급의 현실문제, 불안과 그 원인규명, 그리고 지식계급의 독립가능 여부와 반동성 여부 등에 치우쳐 전개시킴으로써, 프랑스 지식계급이 이념을 넘어서 추구하려 했던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나 인류공동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변질되었다는 한계성을 면다.

이들 프로문학자들의 지나친 지식 계급론으로의 편중성은, 이후 달기의 행동주의 논의를 담당했던 순문학자들에 의하여 지나친 마르크스주의적인 공식론, 또는 기계주의적 독단론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후의 행동주의문학 논의는 이들 순문학자들에 의해 종합적이고 절충적인 입장에서 평가되어지게 된다.